

제3장

# 고양시의 역사





## 1. 구석기시대에도 고양시에 사람이 있었다네!

고양\*시에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때는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산신시가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석기(돌을 이용한 기구)들인데 적게는 한두 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 점이 한꺼번에 땅에서 나왔습니다. 옛 일산읍 마두2리 강촌마을 지역에서 찍개가, 마두3리인 설촌지역에서는 끌개가, 주엽1리와 2리 지역(새말, 오



### \* '고양'이라는 이름의 유래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년)에 고양지역의 두 현인 고봉현과 덕양현이 있어 새로운 현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현의 이름 중 고봉현에서 '높을 고(高)'자를, 덕양현에서 '별 양(陽)'자를 따서 고양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 우리 고양시에서 가까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구석기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의 한탄강변에 있는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 구석기 시대에는 뿔석기를 사용하였는데, 뿔석기는 큰돌에 힘차게 쳐서 쓸모 없는 격지(박편)를 떼어낸 다음 큰돌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몸돌석기(석핵석기)와, 쳐서 떨어져 나간 격지를 손질해 만든 격지석기(박편석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찍개**  
찌르개라고도 합니다. 석기 중에서 끝이 뾰족한 것으로 주로 창날로 사용하였습니다.



**끌개**  
긁개라고도 하며, 동물의 가죽 등을 미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마리)에서는 몸돌, 찌개 등이 발견되어 고양시에도 구석기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대략 5만 년 전부터 7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토 유물 중의 일부가 일산 구청 농경자료전시실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곳 : ① 옛 송포면 대화4리 가와지마을(지금의 성저마을과 장성마을)  
 ② 옛 일산읍 주업1리 새말지역(지금의 문촌마을과 후곡마을)  
 ③ 옛 주업2리인 오마리, 마두리의 강촌·설촌지역 등(지금의 문촌, 강촌·정발·백마마을)



## 2. 벼씨를 뿌리며 농사지었던 신석기시대의 고양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신석기시대는 새로운 농사의 시작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유심히 살펴야 하는 유물이 가와지 벼씨입니다. 이 벼씨는 연대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처음 발견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가와지 벼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벼씨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재배 벼씨인데, 흥도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와지 벼씨는 신석기시대의 농경에 관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일산신시가지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새김무늬 토기가 발굴되었으며, 당시 지영동과 신원동 및 지축동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줄문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와지 벼씨

- ※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곳 : ① 일산신시가지 지역인 주업동  
 ② 대화동 가와지 마을(성저마을)의 유적  
 ③ 고봉, 원신, 효자동 등 곡릉천과 창릉천 주변의 유적



### 3. 고인돌과 무문토기의 청동기시대



화정2동의 고인돌

고양시의 청동기시대 유물은 주로 한강의 하류나 곡릉천, 창릉천, 원당천, 장진천 등 하천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야트막한 언덕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농사에 의존한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고양지역에 수십 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고 화정동 일대에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산 신시가지 지역에서는 주로 토기의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찰흙띠겉 입술토기, 쇠뿔손잡이 토기, 굽잔 토기 등이었습니다. 특히 주엽동의 새말 지역에서는 겹아가리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걸치는 시기의 토기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무문토기(민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의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 4. 삼국의 치열한 싸움터였던 곳

현재까지 고조선과 관련된 고양시의 유물이나 역사적 사실 중 크게 살펴보아야 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면 고양시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고양지역

의 지배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를 통해 한강유역은 고구려·백제·신라가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삼국 중 고양시 일대를 제일 먼저 차지한 세력은 백제입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가 북한산에 올라 지세를 살피고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산 고성(옛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백제의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제4대 개루왕 5년(132년)에 북한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후 고양지역은 고구려의 광개토왕·장수왕 때 고구려의 땅이 됩니다. 고구려는 고양지역에 달을성현과 개백현을 만들었고, 이후 달을성현은 고봉현으로, 개백현은 우왕·왕봉·행주 등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고봉은 지금의 일산구 지역의 옛이름이며 나머지 이름들은 지금의 덕양구 지역입니다. 이때 성저마을 앞 별관에 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봉산에 남아 있는 토성도 고구려의 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후 세력이 크게 성장한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후에도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고구려의 장군 고승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의 가장 북쪽 기지인 북한산성을 포위·공격했는데 이때 진평왕은 친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물리쳤습니다. 문무왕 원년(661년) 고구려·말갈 연합군이 북한산성을 포위하고 20여 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땅이 된 고양지역에는 북한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고양지역은 한산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지역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흔



#### \*삼국사기

고려시대(1145년) 김부식이 저술하여 펴낸 삼국시대의 역사서.





북한산성



은영 묘비



고려청자 도요지

적은 행주산성입니다. 행주산성의 토성을 처음 쌓은 때는 8~9세기로 여겨지며, 성 부근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지축동에 있는 흥국사는 원효대사\*가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는 100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입니다. 그리고 행주외동에는 신라 효공왕 때의 충신 은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중심의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양지역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세워진 고려는 마침내 태조 왕건 때 전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고양지역은 양주와 남경에 속한 마을이 되었다가 한양부의 속현이 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도읍인 개성과 가까운 고양지역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흥도동에는 고려청자를 만들던 가마터가 남아 있으며, 공양왕릉과 최영 장군의



**\* 원효대사**

한국의 불교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고승의 한 사람으로 신라 때의 승려이며 설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묘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주요세력이었던 해주 기씨, 원당동의 왕릉골, 식사동의 대궐고개, 어침이, 어침사 등 여러 인물·유적·땅이름이 고양지역의 고려시대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 5. 고양이란 이름으로

1392년 조선왕조가 시작된 후 고양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후 조선 태조는 도성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우리 고장은 새로운 수도 한양과 옛 도성인 개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오가는 사신들의 여행로도 우리 고장을 지나게 되어 고양지역에는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394년(태조 3년)에 고양지역인 고봉에 감무\*라는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세종 13년(1413년)에 고봉과 덕양의 이름을 합쳐 '고양' 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90여 년 전의 일로 비로소 이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종 2년(1471년)에 왕의 무덤이 있는 곳(세조의 아들들인 예종의 창릉과 덕종의 경릉)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후 고양지역에는 왕족이나 지배 양반층의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땅(사패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 \* 감무

고려시대 작은 현에 두었던 현의 우두머리를 감무라 하였는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1413년에 감무를 현감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조선 제10대 왕인 연산군은 고양지역을 왕의 사냥터로 만들어 출입할 수 없는 '금표\*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의 능과 묘는 모두 잡초밭이 되었고, 주민들과 관청은 인근의 파주나 양주로 옮겨져 고양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에 의한 금표구역은 중종이 연산군을 쫓아낸 사건으로(중종반정) 인해 풀렸고, 고양지역은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1592년 4월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패배로 임금인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멀리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지역은 도읍인 한성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과 한성에서부터 평양·의주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 대자동에 있던 고양군의 관아 건물도 모두 불타는 등 왜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양지역에서는 커다란 전투가 벌어졌는데, 벽제관 전투와 행주대첩이 그것입니다. 그밖에도 석탄 이신의 같은 의병장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 사패지**

고려·조선시대에 왕이 왕족이나 공신에게 토지나 노비를 내려줄 때,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던 일 또는 그 문서를 사패라 하였는데, 이것을 받은 땅을 사패지라고 하였습니다.

**\* 금표**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알리는데 쓰던 표시입니다. 연산군은 사냥과 유흥 등을 위해 경기도 일원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에도 금표비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 • 벽제관 전투

평안도 방면으로 진격한 왜군은 1593년(선조 26) 평양에서 이어 송이 거느린 명나라 군대에 대패하여 서울로 후퇴하였습니다. 이에 명나라 군은 평양 승전의 여세를 몰아 개성까지 진격한 뒤, 1월 25일 서울로 남진하여 왜군의 주력부대를 격멸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명나라 군 병력



4만 3,000명과 왜군 병력 7만 1,000명이 벽제관 근처인 숫돌고개 등에서 싸움을 벌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서둘러 진격한 명나라 군대가 왜군의 맹공격을 받고 패전하였는데, 이 전투를 벽제관 전투라고 합니다. 또 달리 숫돌고개 전투라 부르기도 합니다.

### •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도원수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을 말합니다. 권율은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산 독산성에 머물다가, 1593년(선조 26) 2월 3천여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습니다. 한편 왜군은 이 무렵 총퇴각을 감행하여 서울 부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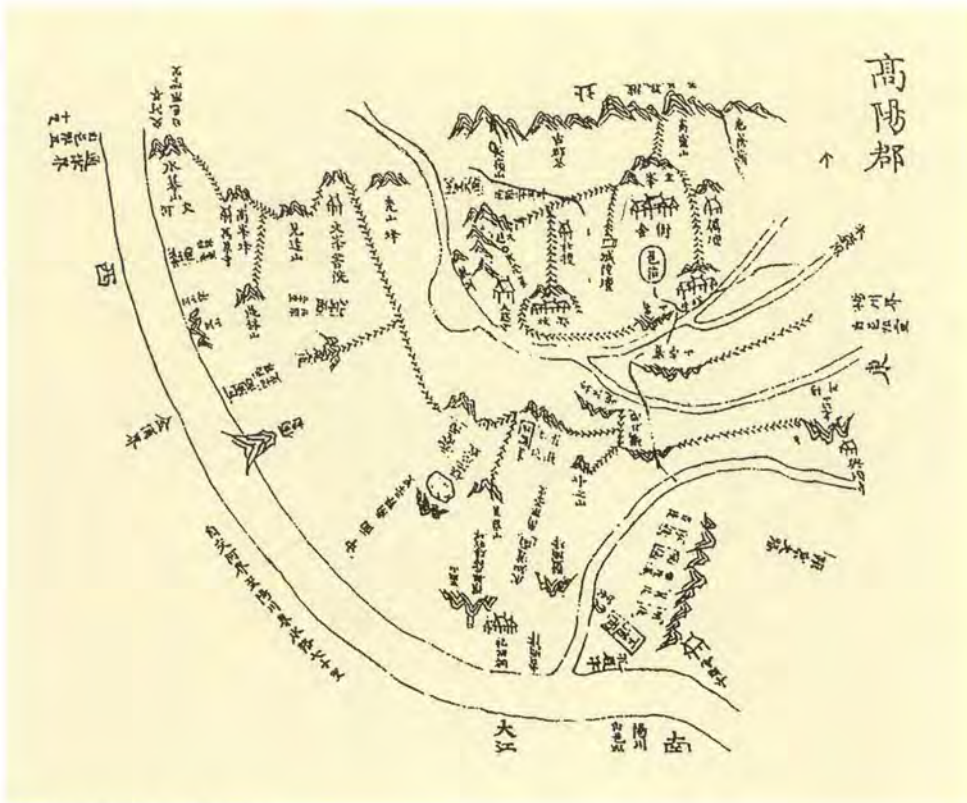
로 집결할 때였으므로 그 병력이 대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1월 말의 벽제관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사기 또한 충천해 있었습니다. 2월 12일 새벽 왜군은 3만여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여러 겹으로 성(城)을 포위하고 7차례에 걸쳐 종일토록 맹공격해왔습니다. 이에 권율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왜군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였으며, 고양지역의 의병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일치 단결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여 마침내 왜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습니다. 이때 부녀자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 6. 서울의 옛 땅은 대부분 고양시

조선 후기 고양지역의 자세한 모습은 영조 당시 고양군수인 이석희가 편찬하여 1755년에 펴낸 『고양군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이것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고양 땅에는 남자 6,785명, 여자 7,076명 등 약 1만 3,800명이 살고 있었으며 8개 면에 3,508호의 집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고양 땅에서 생산해낸 것은 농산물과 한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게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강 주변에는 갈대밭이 넓게 이루어져 중앙의 관청에서 관원이 나와 관리·감독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고양군 지도



고양군 관내도(1918년). 현재 서울 강북지역의 대부분이 고양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후 조선조 말기인 조선 고종 32년에 이르기까지 고양 땅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고양땅이 잠시 서울인 한성부에 속해 있다가 이후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양주군의 신혈면이 고양 지역에 새롭게 들어와 8개 면에서 9개 면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경의선이 고양지역을 지나게 되어 새로운 상업의 문물이 오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서고 있는 일산장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그후 1910년부터 1973년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지금의 서울시와 고양지역이 서로 그 땅을 주고받으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리대면, 신혈면, 원당면, 하도면, 구지도면, 중면, 구이면, 사포면, 송산면 9면 이외에 새로이 경성부로부터 한지면(지금의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일부 지역), 뚝(독)도면(지금의 성동구, 송파구 일부), 송인면(지금의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지역), 은평면(지금의 서대문구, 은평구), 연희면(지금의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강면(지금의 마포구, 영등포구 일부) 등이 고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양군은 지금의 서울 강북지역의 대부분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1914년 지금의 충청로 부근으로 고양군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동대문 을지로6가 군청사의 직원들(1958년)

적십자병원 자리에 있던 충정로 고양군 청사는 고양 역사상 가장 큰 면적을 관할 하던 때로 고양 땅을 밟지 않고는 수도인 서울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36년 고양군청은 서울 동대문 부근으로 옮겨졌으며 용강면·연희면·한지면 등이 다시 서울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는 한 강에 대규모의 제방이 쌓여져 지도가 바뀔 정도의 큰 경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이 가까워오자 우리 고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는 일제에 의해 잔인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강제 징용, 정신대 등으로 아주 먼 곳까지 끌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945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우리 나라는 물론 우리 고장에도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해방은 점차 수도 서울을 커지게 하고 반대로 고양지역의 면적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우리 고장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즈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고양지역 부근인 개성 부근에서 시작되어 처음 전투에서 우리 군이 계속 후퇴하여 우리 고장은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4차례씩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더욱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 큰 아픔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덕이동의 충혼탑과 태극단 묘역, 금정굴 등이 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전쟁 후 고양군의 동남쪽 관할 구역 대부분이 수도 서울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군청, 경찰서, 우체국 등은 서울에 그대로 있어 매우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1961년 고양군청이 지금의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 을지로6가에서 지금의 덕양구 성사동 성사1동사무소 자리에 잠시 있다가 1963년 지금의 시청 자리인 주교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한강 주변의 화전·지도(능곡)·중면(일산) 송포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정리 및 전천후 농업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고양시 최대의 곡창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라 하여 도로가 새로 닦여지고 지붕이 바뀌는 등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7. 신도시 개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양지역에도 본격적인 도시화·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교·성사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능곡·벽제·원일산 지역에도 단독·연립주택·주공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9년 일산신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역사를 크게 뒤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온 마을·산·나무·들판 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고양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의 개발은 고양지역을 수백년 간 이어온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새로운 현대 도시로 바뀌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개발 전 중산마을



고양시 개발 이후의 전경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된 1990년대 초반의 화정·신원당·행신·능곡·중산·탄현 지역의 개발에 따라 고양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에는 약 83만 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 8. 고양의 미래

21세기 초반에 추진되어질 한국국제전시장,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국제관광숙박단지, 차이나타운, 고양종합운동장 등의 건립은 고양시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과 경의선의 복원 등으로 고양시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확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거점도시로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